

통기타 벗삼아 낭만 즐기는 '은색 청춘'



오송방씨가 자신의 집을 배경으로 통기타를 치며 '비내리는 고모령'을 열창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담양군 남면 연천리 오송방씨

오송방(吳松芳·65)씨를 만나러 담양군 남면 연천리로 향했다. 남면 소재지 초입에 있는 남면초등학교 옆 고갯길로 접어들자 당산나무가 나오고 산 기슭쪽으로 전원주택 몇채가 보였다. 연천리는 농촌의 전통가옥과 10여년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서양식 전원주택이 섞여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 자리잡은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큰길쪽으로는 전원주택이 늘어서 있고 당산나무에서 산기슭쪽으로는 전원주택 10여채가 자리잡고 있다. 반개를 맞아 불탄 수백년 된 당산나무와 주변의 아름다움은 행나루가 오래된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당산나무에서 만난 오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섰다. 오씨의 집은 전통과 현대가 혼재된 이 마을의 특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개울을 따라 50여m쯤 되는 진입로가 있고 도열하듯 늘어진 대나무가 진입로와 개울의 경계를 짓고 있다.

마당에 들어서자 조그만 단층 양옥집이 보이고 잔디마당쪽에 텃밭과 빨간 지붕의 우산각, 그물로 쳐 만든 개인용 골프 연습장이 눈에 들어왔다.

주인장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씨는 이 마을에 처음으로 전원주택을 지은 사람이다. 지난 88년 대나무 밭이던 이곳에 땅을 샀지만 96년에야 집을 짓고 들어왔다. 이후 지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됐다.

고향인 광주 송정리인 오씨가 이곳에 자리잡은 이유는 특별하지 않다. 접근성이 좋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주변 풍광이 좋았기 때문이

다. 오씨는 현재 싱글이다. 부인에 대해 묻자 웃음으로 넘긴다. 자녀들은 출가했지만 가끔씩 만난다. 남자에게는 드문 오씨의 이름에서 그의 인생 여정을 읽을 수 있었다. '꽃다운 소나무'처럼 평생을 자유인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전원에서 자유를 즐기고 있다.

혼자 살지만 친구들과 후배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 외롭지 않고 했다. 한때는 50여명에 가까운 지인들이 한꺼번에 집에 찾아와 파티를 즐긴 적도 있었다.

"지금은 내 또래보다는 훨씬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입니다." 오씨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항상 생기고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 좋다"며 "이들과 어울리려면 유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근성 좋고 풍광 빼어나 96년 이주
아마추어 기타 동호회 만들어 활동
총장로·대나무축제 때 초청 받기도

어른이라고 대접을 기대하지 않고 격이없이 지내는 이런 그의 성격은 아마추어 기타 동호회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지난 99년 '빛고을 광주 필로스'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을 지냈고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여명의 회원중 40대가 대다수인데도 연장으로 고문역할을 하며 매달 두차례씩 광주 시내 카페 등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광주 총장로축제와 담양 대나무축제 등 지역축제 때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기도 했다.

애창곡을 부탁하자 백발의 오씨는 거절하지 않았다. "딩~디디~딩디. 딩~디디~딩디..." 그의 통기타가 한층을 구슬프게 울리듯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 설제에..."라는 가사가 울려 퍼졌다.

'비내리는 고모령'을 택한 이유를 묻자 전주부인이 아마추어들에게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오씨의 전원곡은 오늘도 자유롭게 초겨울을 수놓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려말 병부상서 전신민이 충절 다짐하며 지은 정자

■ 담양군 남면 독수정은

남면 면소재지에서 산음교라는 조그만 다리를 건너 200m쯤 올라가면 '독수정원림'이 나온다. 독수정원림은 독수정(獨守亭·사진)이란 정자와 낙랑정승 소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으로 이뤄진 주변의 숲을 일컫는 말이다.

독수정은 고려말 병부상서를 지낸 전신민이 고려가 멸망하자 두 나라를 섬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곳에 은거해 지은 정자로 1390년께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자 이름은 이태백의 시에서 따왔으며 은거하며 생활하는 선비의 고결한 뜻을 담고 있다.

전신민은 대나무와 소나무를 심어 충절을 다짐했다고 한다. 독수정의 방향이 북쪽으로 향해 있는 이유는 아침마다 북쪽 송도(지금의 개성)를 향해 탄식을 하며 절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독수정원림은 조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산수원림 기법을 사용했으며 담양으로 대표되는 호남정자의 원



조로 평가받고 있다. 독수정은 인근에 있는 소쇄원·환벽당·식영정 등 다른 정자보다 150여년 빨리 지어졌다.

다만 지금의 독수정은 1972년에 허물고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했고 주변의 노거수원림이 지방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만드셨다 혁신한 신행예금!!
4-9% 특 다짐입니다!

한시 모집

12개월 7.2% = 8.4% (연평균)

9개월 7.1% = 8.0% (연평균)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
할거예금	7.0%	7.1%	7.2%
기준	1년	2년	3년
할거예금	6.0%	6.1%	6.2%

광주신협

본회전화: 062-4100 (본회사무실 및 서지실) | 본회지점: 062-4105 (12월 6일 14:00 ~ 15:00)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 40, 50부킹몰!

기분 ₩19,500 | 결제가 쉬운 날까지 푸-욱 계속 합니다

서울관광카바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7/예약: 062 228 9334)